

개표 지연·새벽에 당선증...무안선관위, 부실 운영 도마 위

개표기 고장·새벽 4시 당선증 교부 논란 후보자·가족·지지자·선거사무원 등 밤새 “책임 있는 관리·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과 새벽 시간대 당선증 교부 등 관리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6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무안군 역시 개표 과정에서 개표기 장애가 발생해 개표가 일부 지연됐다. 개표장 주변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가족, 지지자들이 밤새 결과를 기다려야 했으며 일부는 새벽까지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문제는 개표 지연 이후 이어진 당선증 교부 과정이었다. 무안군선관위는 당초 오전 2-3시께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며 실제 교부는 오전 4시 전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들은 밤샘 개표에 이어 새벽 시간까지 선관위에 머물러야 했고, 가족과 지지자들 역시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당선증 수여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당선자 측 관계자들은 “개표가 늦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전 4시에 당선증을 받는 상황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날이 밝은 뒤 별도 일정을 잡아 교부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축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웠다. 밤을 꼬박 새운 당선자와 가족들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간이 과연 축하와 예우를 위한 적절한 시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인근 지역 선관위는 다음 날 또는 별도 날짜를 정해 당선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성호 기자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정 운영 문제가 아니라 주민 중심 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개표기 고장으로 인한 개표 지연, 오전 4시 당선증 교부까지 무안군선관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신뢰는 투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가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

내달 1일부터 모든 어선 대상 위반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상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기상 특보 발효 여부나 선원 수와 무관하게 대상을 전 어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업이나 항해 중 외부로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는 반드시 바다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행위자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

등에게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순 미착용뿐만 아니라 버클을 채우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착용하거나 가스 실린더 불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에도 엄격히 단속될 수 있다. 실제로 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인 이하 조업선 등을 대상으로 총 53건의 미착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국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사고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나와 가족의 소중한 안전을 위해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영암군,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 발굴

65세 이상 노인·지체 장애인 등

영암군은 8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기 위해 이달 한달 동안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은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조기에 찾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굴 대상은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다.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은 관내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

굴할 계획이다. 이후 심층 상담과 세밀한 욕구 조사를 거쳐 개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주거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돌봄 사업 교육도 실시했다. <사진> 유미경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모든 통합돌봄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 누구나 따뜻하게 제갈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에 나가기”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군, '자연의 결을 따라 흐르는 우리 가락' 개최

13일 고산오우가정원서 국악공연 오우가 낭송·판소리 등 올림 선사

해남군이 초여름 녹음이 우거진 전통 정원을 무대 삼아 아름다운 우리 가락의 향연을 펼친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4시 고산유적지 내 고산오우가정원(사진)에서 국악공연 '자연의 결을 따라 흐르는 우리 가락'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고산 윤선도의 대표 시조인 '오우가(五友歌)'를 테마로 조성된 정원의 장소적 의미를 살려 기획됐다. 인공적인 연출과 기계음을 최소화하고, 바람 소리 등 자연이 내어주는 소리와 국악 본연의 맑은 울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고운 선의 전통무용, 피리 연주, 오우가 시조 해설 및 낭송, 가야금 병창, 판소리(수궁가 중), 신명 나는 설장구 공연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로 알차게 채워진다. 관객들은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문학과



음악이 교감하는 고산오우가정원의 특별한 풍류를 만끽할 수 있다. 이번 무대는 딱딱한 전문 사회자 없이 공연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진행돼 정원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층 돋울 예정이다. 군은 관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문화의 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곳곳에 간이 의자와 테이블 등을 세심하게 비치한다. 다만 비가

올 경우에는 인근 고산윤선도박물관 지하 1층 로비로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오우가정원의 풍광 속에서 우리 국악이 지닌 여백의 미와 깊은 울림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초여름 자연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휴식과 전통문화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섬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 추진

오는 26일까지...당첨자 70명 선정

영광군은 관광객들의 생생한 여행 후기를 통해 지역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풍성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반값 여행 프로그램인 '영광 섬표여행'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광객 중심의 자발적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영광 섬표여행 SNS 관광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영광군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팔로우하거나 구독한 뒤, 영광군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이후 본인 계정에서 영광 여행 후기를 정성껏 작성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네이버 폼으로 인증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군은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오는 30일 총 70

명을 추첨하며, 선정된 이들에게는 3만원 상당의 우수한 영광 특산품을 경품으로 발송한다. 이밖에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광 섬표여행 누리집 및 군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SNS 이벤트는 방문객이 직접 경험한 영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온라인상에 확산하는 뜻깊은 참여형 홍보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영광 섬표여행을 통해 여행 비용 부담은 덜고,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먹거리, 특산품까지 두루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군, '응급의료협의체 간담회' 개최

진도군은 “최근 군 보건소와 진도소방서, 진도전남병원, 진도한국병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진도전남병원에 응급실이 신규 개설됨에 따라,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에게 한층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진도군 내 응급실은 단일 체계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응급실 추가 개설로 지역 의료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응급환자 대응 역량 역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평군, 영유아 보호자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이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 진행

함평군은 8일 “이달말까지 2-8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송송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베이비 마사지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통한 피부 접촉으로 아이에게 깊은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감 활동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진>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미니 전신 마사지 ▲송송 키 크키 체조 ▲키 속속 다리 마사지 ▲베·등 마사지 등 알찬 과정으로 구성됐

으며, 신나는 음악을 곁들여 한층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군 보건소는 아이들이 마사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것은 물론, 보호자 역시 아이와 밀접하게 호흡하며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화실 군 보건소장은 “이번 마사지 교실이 부모와 아이가 서로 따뜻하게 교감하며 튼튼한 애착 관계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맞춤형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